



# 미끄럼타기



노 명 석

- 1947년 경남 창원 출생
- 1966년 대구고등학교 졸업, 시집  
태양에서 제외된 陽地, 간행
- 1967년 『새農民』誌 현상 장편소설  
공모에 『노들 강변』 입선
- 1975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 1979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과 수료
- 1983년 『現代文學』誌에 「그를 하룻  
날, 「飼育」으로 추천 데뷔
- 1984년 제1회 萬海 佛敎文學賞 수상  
현 재 「1980년대 소설 그룹」 동인  
으로 활동중
- 1987년 창작집 龍사냥 을 펴냄.

“누구나 지축 위에 홀로 서 있나니 햇살 한 줄기 뻗쳤는가 하면 어느 덧 황혼이 깃드네.”

직장이 있는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서 허 전해 (許田海) 양은 자신의 애송시를 나직이 읊조렸다. 건물 외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유리창으로 황혼이 비껴들고 있었으므로 제 폰수에 걸맞지 않게 시리 문득 센터멘탈해져서 시심(詩心)에 젖은 거였다.

(누구 시더라?)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시인의 이름은 커녕 그 시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그녀는 알쏭달쏭했다. 최종 학력인 여고 시절 줄곧 문예반에 몸담았었던 덕분에 알게 된 그 시는 이따금 그녀의 품격을 높여 주는 비장의 무기가 되기도 했다. 크고 작은 모임 같은 데서 흥이 나면 번차례로 하게 마련인 노래 대신에 그 시를 읊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흠모의 눈길로 박수를 보내곤 했었으니까. 그녀의 노래 숨씨가 돼지 먹따는 소리 못잖은 음치인 줄도 모르고서. 또 그녀가 외국 시로선 유일하게, 그것도 더구나 전문(全文)을 외는 까닭도 따지고 보면 그녀의 기억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워낙 짧기 때문이 아니던가.

아뭏든, 막 빌딩의 수위실을 지나치면서 그녀는 그런 시시콜콜한 상념은 말끔히 지워버린 대신 낯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신의 별명이기도 한 ‘꽃뱀’이 허물을 벗어 던지듯 육중한 건물을 가볍하게 빠져나온 그녀의 기분은 그야말로 ‘그지그만’이었다.

‘하늘을 날듯이’ 라든가, ‘새털같이 가벼운’ 하는 식의 혼해빠진 문구로는 모처럼 절정에 이르른 기분을 나타내기엔 부족할 정도였다. 혼쾌하고 활가분하고, 삼상하고, 즐겁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나타낸 형



용사란 형용사는 모조리 동원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나 할까.

그도 그럴것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토요일인 데다가, 또 마침 자신의 생리처럼 다달이 치르는 '페이 데이'라 연말 보너스까지 받아 옆구리에 낀 핸드백이 버거울 정도로 두툼했다. 게다가 날씨가 딱 때맞춰 성탄절을 축하이나 하듯 어스름이 깔려드는 짙은 하늘이 굵은 눈송이들을 하나둘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 곰곰 따져보니 이 또한 울거울 들어 가뭇 끝에 철늦게 선보이는 첫눈이 아닌가. 그러니 아무리 혼기를 한참이나 놓치고도, 오늘 같은 날 전화 한 통으로 불러낼 만한 '짜꿍' 하나 없는 '특급 노처녀' 신세라지만 요즘 세월에 그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

세모(歲暮)의 거리는 바야흐로 그녀의 부푼 가슴 마냥, 술단지 속의 누룩이 괴듯 부글부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길가에 즐비한 가게들은 휘황한 불들을 켜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징글벨' 소리와 울긋불긋한 트리, 여기저기 우뚝한 교회의 눈부신 조명등을 부추기듯 울려 퍼지는 종소리……. 어디 그뿐인가. 어깨를 겨루며 도란도란 걷는 사람들의 경쾌한 발걸음에 그녀의 달뜬 기분은 더욱 무르익었다.

(모처럼 성령이 임한 이 축복의 날을 어떻게 보낸담?)

머리를 가웃거리며 인파를 헤치던 그녀는 누군가가 어깨를 툭 치는 통에 우뚝 섰다.

「미스 꽃뱀, 베리 베리 구리스마스, 히히히……」

그녀가 소속된 영업부의 사원인 꺾다리 미스터 박이 그녀를 굽어보며 히물히물 웃고 있었다.

「나 참, 또 징그럽게 나오기예요?

택에서나 동동 구리무(크림) 찾구 있으세요.」

톡 쏘아주고 돌아서 버리긴 했지만, 결코 그녀의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었다. 동병상련이랄까, 그녀와 마찬가지로 온종일 시가지를 누비고 다녀야만 하는 미스터 박이 오히려 안쓰러웠다. 그녀는 회사 제품을 일일이 가정 방문하여 월부 계약을 맺는 외판 사원이었고, 그는 그것을 수금하는 관리 사원이었으니가. 회사에서 베테랑으로 모시는 세일즈맨인 그녀에 비한다면, 그의 고정급이란 쥐꼬리의 반푼 어치도 못 되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그녀가 남달리 매상을 올리는 데는 자신의 미인계(美人計)도 적잖은 몫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지하철역이 가까울수록 그 일대를 메운 노점들 때문에 그녀의 행진은 더 느렸다. 연말 대목을 보느라 시끌벅적한 각다귀판울 뚫고 나가던 그녀는 중년 사내의 외침에 귀가 솔깃했다.

「자, 누구든지 쏘세요! 행운의 하트 무늬를 딱 맞추시면 뽕 따구 님 보는 겁니다. 돈도 안 받고, 기천원짜리 푸짐한 선물을 트린다니까요. 자, 님 보구 뽕 따구…….」

하트 무늬? 뽕 따고 님도 본다?

달무리처럼 둘러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면서 그녀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가만히 눌렀다. 오늘 같은 날 외톨이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얼굴까지 붉혔다. 문득 간밤에 꾸는 거북 꿈이 떠올라 슬쩍 미소를 흘렸다. 고향 마을 앞의 연못가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넘기를 하는 참인데, 연못 속에서 망아지 만한 거북이 동실 떠오르더니 그녀를 향해 자꾸만 웅크를 해대지 않았던가. 거북꿈은 길몽이라 했으니, 틀림없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았다.

사람들의 달무리 가운데에는 희한한 장사판이 벌

어져 있었다. 한때 TV에서 매주마다 방영했었던 '주택 복권 추첨' 광경과 엇비슷한 과녁 맞히기 게임이었다. 커다란 둥근 나무판자에 물결무늬로 그려진 여남은 개의 동그라미들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한가운데의 동그라미에는 숫자 대신 붉은 하트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장사꾼 사내가 그것을 회전시키자 청년 하나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활을 쏘고 있었다.

천 원을 내고 세 번을 쏘아서 화살이 박힌 칸의 번호에 따라 각종 상품을 주는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래뵈두 군대에선 특등 사수였더랬는데, 이놈의 활은 왜 이 모양이야, 젠장.

낙방을 거꾸 한 청년이 고작 꺾 한통을 타고서는 내려놓은 활을 집어든 이는 바로 그녀였다.

「아니, 아가씨 아니야? 거 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가 메기는 화살 끝으로 쏠렸고, 더러는 침을 꿀꺽 삼키는 사내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첫 화살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

「와아, 명중이다!」

「왕년에 양궁 선수였나 봐. 어째 시작하는 폼부터가 멋지더라니까.」

사람들의 환성과 박수 속에서 그녀의 두번째 화살도 하트 무늬를 명중시켰고, 마지막 것만 그 다음 칸으로 날아갔다.

「아가씨야 썩 먹구 알 먹어서 좋겠지만 난 망했구먼.

장갑 두 켤레와 세수비누 한 개를 포장지로 말아 건네면서 장사꾼 사내는 울상을 지었다.

발갡게 달아오른 볼을 토닥이면서, 그 곳을 벗어난 그녀가 여남은 발짝 걸었을 때였다.

「저…… 실례지만,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묵직한 사내의 목청에 돌아본 그녀는 난데없는 프로포즈 탓보다도 낮익은 얼굴 때문에 어안이 더 병병했다. 종전에 제 흉에 겨워 끼어들고 만 야바위판에서 그녀에 앞서 활을 쏘았던 청년이 아닌가.

「그, 글썩요. 낯선 분한테 제가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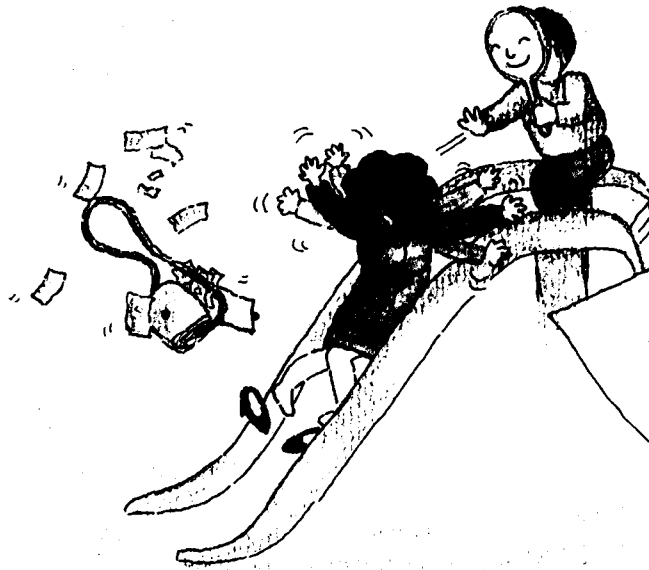
「인연이란 다 그런 법 아닙니까. 아까는 아가씨의 활 솜씨 때문에 제가 더 무참해졌습니다.

예의상으로도 차 한잔쯤은 그리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녀의 말꼬리를 나뉜 청년은 이미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의 고동이 발끝까지 울리는 듯 걸음이 험클어질 지경이었다. 간밤의 거북꿈이 역시 제 값을 톡톡히 하는구나. 옷차림부터가 깔끔한 청년의 허우대며 인상이 그다지 밍상은 아닌 데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화술과 어투 또한 세련되고 지성적이지 않은가.

「실례이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날 이왕이면 차보다도 한잔의 축배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카페 앞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는 은은한 눈길에



끌려 그녀는 그를 뒤따랐다. 까짓, 연분이 안 닿아 평생 팔자는 못고치더라도 밀쳐 봐야 본전이지. 운 좋으면 혹시 세일즈 건수를 올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간막이 홀에 마주 앉아 양주잔을 들면서 그들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조금씩 각자의 사연을 풀어냈다.

「다 같이 노(老)자 딱지를 못 댈 처녀·총각끼리라니까 회한한 인연이로군요. 미스 허가 저 대신에 화살 한 방을 하트 무늬에 맞춰 주셨으니깐 더 더욱……」

꽤나 깊은 의미를 담은 청년의 어투 탓인지, 그녀의 얼굴은 술 빛갈만큼이나 불그레해졌다.

「참 그러고 보니, 이 장갑 한 켤레의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시군요. 장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는데, 싸구려지만 집에 가실 때 끼세요.」

말머리를 찾던 나머지, 그녀는 좀 전에 야바위판에서 딴 장갑 중에서 남자용을 꺼내 청년에게 건넸다.

「값이 문쩍니까. 덕분에 올 겨울은 이 손이 호강을 하겠군요. 하하하……」

두 사람은 또 술잔을 마주쳤고, 술기운이 오르는 만큼 화제도 깊고 다양해져 갔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그녀만은 시간이 가는 줄도 잊은 터였다.

「좀 실례하겠어요.」

요의를 누르려 애쓰다 말고 그녀는 일어서서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는 홀을 나갔다. 곧 제자리로 돌아온 그녀에게 술을 따르며 청년이 말했다.

「저는 말입니다, 술 실력이 미스 허 정도는 왜야 결혼할 작정입니다.」

「전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입에 대다 보니, 즐기게까지 돼 버린 건데 너무 나무라시는군요.」

「오 천만에! 가끔가다 이렇게 부창부수(夫唱婦隨)하는 재미도 없다면 긴 생애를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뜻이지, 결코 미스 허를 비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잔!」

그들은 또 잔을 맞닥뜨리고 그녀도 브라보 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 잔을 내려놓기가 바쁘게 그녀의 고개가 꺾어지더니 잇따라 머리를 테이블 위에 박은 채 그녀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웨이터가 와서 흔들어 깨웠을 때에야 가까스로 눈을 뜬 그녀는 머리맡에 놓인 쪽지를 펴 들었다.

‘재작년 이맘때 바로 이곳에서 묘령의 아가씨로부터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네다바이를 당했습니다. 미스 허가 그녀를 달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어쩌면 동일인인지도 모르지만) 결례를 합니다. 술값은 아까 받은 장갑 값으로 치러 드리고 먼저 꺼 집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허겁지겁 핸드백을 열었으나, 그 속에 든 돈은 온데간데 없다. 청년이 앉았던 자리의 테이블 밑에서 구겨진 약 포장지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

